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베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양신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흑사병과 베자
- III.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
- IV. 나오는 말

[초록]

중세의 붕괴를 낳은 흑사병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목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걸림돌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도망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의 진노인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죄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베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남겼다. 그것이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이다. 그래서 베자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흑사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 어떻게 흑사병을 통한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의 자리를 베자는 어떻게 이했는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위로하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라는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난제인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베자가 중세적 대응을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이성적 논리에 근거한 일반 원칙과 양심의 확신을 윤리적 판단의 척도로서 삼아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 삼았는지를 보여주었다.

키워드: 베자, 흑사병, 소명, 섭리, 양심, 윤리적 척도

1. 들어가는 말

흑사병은 중세사회의 구조를 붕괴시킨 원인이다. 14세기 의사들은 3종류의 약초를 처방하기도 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피신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멀리 떠나고, 늦게 귀환하라”(cito, longe, tarde)란 표어가 유일한 처방전으로 여겨졌다.¹ 하지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병에 걸린 자들을 두고 살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떠나는 이기적 행동은 사회를 도덕적 폐허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중세의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삶 다음에 오는 삶에 대한 소망이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인해 “장례미사도 받지 못한 죽음이 도처에 널리게 되자 사람들은 기존의 죽음관을 포기하고, 죽음을 죽음 자체로, 교회의 도움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²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경험하였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만연하게 되자, 죽음 자체가 일상화되고 죽음에 점차 무감각해져 갔다.³

중세의 붕괴를 부른 흑사병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비껴가지 않았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1519년 흑사병에 걸렸다. 9월경 흑사병에 전염되어, 10월경에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Andreas)는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취리히의 인구는 약 7000명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하여 약 25%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니,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9246)

1 H. Mormeier, “Die Flucht vor der Pest als religiöses Problem,” ed. K. Schreiner, *Laienfrömmigkeit im späten Mittelalter. Formen, Funktionen, politisch-soziale Zusammenhänge* (München, 1992), 331-397, 332.

2 Alois M. Haas, *Todesbilder im Mittelalter. Fakten und Hinweise in der deutschen Literatur* (Darmstadt, 1989), 178.

3 C. Hegel, ed. “Chronik des Burkard Zink 1368-1468”, Bd. 4(Leipzig, 1866), 293. 166.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2007), 8.

종교개혁 당시에도 흑사병이 도시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⁴ 흑사병에서 회복을 경험한 츠빙글리는 그 경험을 토대로 “역병가”(Pestlied)를 작성하였다. 칼빈도 제2차 제네바 사역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흑사병이 도시를 위협하는 위기를 경험하였다: 1542년부터 1544년, 그리고 1560년. 흑사병은 목회자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흑사병으로 인해 영적 좌절을 경험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하는 일을 두고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처럼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인생의 위기이자 목회사역의 걸림돌이었다. 흑사병은 종교개혁자 개인에게 회심의 계기를 주기도 했지만, 종교개혁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아야만 했다. 죽음은 인간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하기에 중세 사회는 흑사병을 인간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은유로써 이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마녀사냥을 대안으로 실행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전염병인 흑사병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당시의 슬픔과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위로하였는지, 베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흑사병이 어떤 병인지, 흑사병이 발발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룬 지침서이다. 이 글을 토대로 신학자로서의 베자 연구를 넘어서 목회자로서의 베자 연구를 위한 토대를 놓고자 한다. 지금까지 베자 연구가 칼빈과 베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점으로 한 신학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 정통주의

4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연구,” 『장신논단』 46(2014), 118.

5 한국 신학계에서 베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단지 칼빈의 후계자이자 정통주의 신학의 포문을 연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칼빈의 ‘국가저항’과의 연속성에서 베자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었을 뿐이었다. 이상용, “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저항 신학,” 『진리와 학문의 세계』 21(2010): 전준봉, “위그노의 정치사상,” 『개혁논총』 17(2011), 75-119. 최근에 들어서 베자의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논문들 몇 편이 발표되었다. 예정론 이해는 칼빈의 신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김지훈, “테오도레 베자의 신학 안에서 예정론에 대한 이해,” 『조직신학연구』 24(2016), 36-64; “예정론의 교회적 위로,” 『한국개혁신학』 44(2014), 126-51. 이은선, “테오도레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 8 (1998), 132-161. 이처럼 베자연구에서 예정론이 차지하는

의 포문을 연 베자의 신학이 칼빈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통주의와 칼빈의 연속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자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목회자였다.⁶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이전에 목회자로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베자가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행위의 시작인 소명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흑사병에 대한 중세의 이해를 넘어서 종교개혁자 베자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흑사병과 베자

베자는 츠빙글리처럼,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겪으면서 개인적 회심의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인해 칼빈처럼,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우선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한 개인의 회심의 과정을 살펴본 후,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흑사병으로 인해 목회자들과의 갈등이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논문들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김지훈은 무라이야마(T. Murayama), 멀러(R. A. Muller)가 칼빈과의 연속성에서 예정론을 이해한 것과, 이전에 비저(E. Bizer), 키켈(W. Kickel), Amstrong), 브레이(J. S. Bray) 등이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대립구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중재하고자 하였다. 베자의 예정론 연구에 나타난 대립구도는 베자의 인식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키켈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멜리슨(J. Mallison)에게서 분명하다. 이에 대한 이해는 양신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베자의 이해-칼빈과 베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에서,” 『한국개혁신학회』 57 (2018), 133-166을 참조하라. 이처럼 베자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과 연속성에 있는지는 칼빈과 정통주의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 단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주의 신학이 지닌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베자의 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⁶ Shawn D. Wright는 베자연구에서 목회적 관점을 배제하고 신학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Shawn D. Wright, *Our Sovereign Refuge: the pastoral theology of Theodore Beza* (Carlisle: Patemoster, 2004).

신학적 답변을 시도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회심

베자는 그의 스승 불마르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34년 팜플렛 사건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승은 독일 튀빙겐(Tübingen)으로 그 다음해에 떠난다. 이렇게 스승과 헤어진 베자는 스승의 집에서 불링거(Bullinger, 1504-1575)의 논문 “거룩한 예배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오류의 기원”(De origine erroris in Divorum ac simulacrorum cultu, 1529)을 발견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베자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 즉 성인에 대한 교리와 미사에서 벌어지는 오류를 바로 알게 되면서, 참된 경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⁷

하지만 베자는 공적인 신앙고백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나긴 망설임”⁸의 시간을 갖는다. 올바른 신앙의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에 머물면서 세상이 주는 “공허한 반짝임과 허망한 유혹”⁹ 속에서 살아간다. 13년이라는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베자에게 일어난다. 베자는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있어야 만했다. 그때 베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삶을 반추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회복되었다.¹⁰ 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안정과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했던 세속적 야망까지 기꺼이 포기하였다.¹¹ 프랑스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제네바로 떠났다. 이런 베자를 파리고등법원은 “도망

7 Beza, *Correspondence de Théodore de Bèze*. ed. Hippolyte Aubert, Henri Meylan, Alain Dufour, vol 9 (Geneva. 1960-), 121. 1568년 8월 18일 자 편지, 이하 CB로 표기한다. Beza to Wolmar, March 12, 1560, CB 3, 45. Scott M. Manetsch, “Beza and the Crisis of Reformed Protestantism,” ed. Martin I. Klauber,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26.

8 Manetsch, “Beza and the Crisis of Reformed Protestantism,” 26.

9 Beza, CB 10, 89.

10 M. A. van den Berg, *Friends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n, 2009), 242-43.

11 Berg, *Friends of Calvin*, 242-43.

간 이단자”라고 판결을 내렸다(1549년 4월 3일). 그리고 베자의 형상을 만들어 불태움으로써 이단자에 해당하는 형벌을 집행하였다.¹² 이로써 베자는 잘못된 신앙의 굴레를 끊고 단호하게 참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 참된 경건을 맞보았지만, 주저하며 공개적인 신앙고백의 자리에 가지 못했던 베자가 종교 개혁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에서 회복된 경험이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경험은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신앙의 훈장으로 달고 당당하게 걸어갈 정도로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2. 흑사병과 목회

베자가 흑사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때는 칼빈에게서 목사회의 의장직을 위임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1568-1571년 제네바에서는 3,000명에 달하는 시민이 흑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¹³ 1571년에 베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는 형제 니콜라스를 잃는다. 니콜라스는 프랑스에서 흑사병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제네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에 낙망한 베자는 취리히에 있는 불링거에게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 저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와 동료들의 기도로 제가 지금 느끼는 처참함에서 벗어나 지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⁴라고 편지를 쓴다.

이외에 흑사병은 베자의 주요 사역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휴교하게 만들었다. 이때 제네바 아카데미에 등록한 학생이 겨우 4명이었기 때문에, 시의회는 베자를 제외하고 모든 교수들을 면직해야만 했다. 베자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면직된 교수들을 위해서 시의회를 찾아가 그들을 대변했다. 또한 베자는 제네바

12 Berg, *Friends of Calvin*, 244. 프랑스 파리의 고등법원은 베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베자는 “베자는 이단자 루터의 사상을 받았었다. 둘째, 자신의 성직록을 팔았다. 제네바로 도망하였다.” 1550년 3월 31일 파리 고등법원은 베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모베르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64년 4월 1일 샤를 9세의 사면령으로 그의 사형판결과 재산 몰수가 취소된 다음에야 그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13 Scott Manetsch, 신호섭 옮김, 『칼빈의 목사회회의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538.

14 Shawn D. Wright,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Glasgow, Christian Focus, 2015), 167.

목사회와도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1570년에 흑사병이 발발하자 시의회는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에서 베자를 제외시켜 달라고 목사회에 부탁하였다. 하지만 제네바 목회자들은 이에 항의하였다. 사실, 제네바 목사들의 항의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1564년과 1567년에도, 시의회가 병원을 방문하며 돌보아야 목회자의 직무에서 베자를 면제시킨 것에 이의를 제기했었다.¹⁵ 시의회는 흑사병으로부터 베자를 지키고자 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률이 높기에 제네바 교회의 중직을 담당할 그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자는 오히려 시의회를 설득하여, 스스로 흑사병 환자들을 방문하여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 1574년에는 흑사병으로 마을 전체가 죽음에 빠지게 되자, 목회자 피에르 데 프레오가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졌다.¹⁶ 어떻게 목사가 흑사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두고 목회 자리를 떠날 수 있는가? 베자는 흑사병 희생자들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목회자의 임무와 사명의 자리를 재고하여 목회자들을 독려할 필요성과 어떻게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¹⁷

베자는 당시 치료제를 찾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가족을 잃는 슬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를 목도해야만 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적어도 베자에게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둘째, 흑사병은 베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음

15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회』, 539.

16 이 시기에 제네바 목사회는 “흑사병의 희생자들이 공포에 질린 가족이나 이웃의 공격을 받거나 버림을 당한 거의 12건에 가까운 사건을 중재”하였다고 한다. 말발 마을의 중산계급의 가족이야기는 당시 흑사병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타락은 충격적이기도 하다. 1571년 9월에 이 가족의 한 딸이 임신 말기에 흑사병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감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이 젊은 여인을 버렸다. 심지어 분만의 고통이 이 감염된 여인을 엄습했을 때, 가족이나 이웃의 그 누구도 이 절망에 휩싸인 여인의 도움에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가련한 여인은 물과 도움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혼자 아이를 분만해야 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는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회』, 407.

17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회』, 540.

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다. 흑사병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되는 경험들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갔다.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갈 신학적 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예정에 대한 논의와 구원의 확신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다. 셋째,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하여 유발된 목회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한 인간으로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답변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는 실천적 목회자였다.

III.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한 목회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을 출판한다.¹⁸ 그가 이 글을 쓰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아아르베르크(Aarberg)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 크레스토프 뤼타르트(Christoph Lüthard)의 잘못된 논리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흑사병을 보냈기 때문에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이차적 원인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였고, 흑사병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흑사병을 피해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¹⁹ 그러므로 베자는

18 베자는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에서 두 주제를 다룬다. 첫째, 흑사병의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다. 자연 발생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섭리의 결과인지를 주요 논제로 다룬다. 흑사병으로 인해 신앙의 삶 자체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흑사병이 발발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부족한 결과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다.

19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회』, 541.

흑사병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중세적 이해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해야 했다. 그리고 개혁교회에 남겨진 실천적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목사가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인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한 목사의 의무가 자신의 영적 양떼를 향한 책무를 대신하는 것인가? 목사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병든 자기 교구민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처럼 흑사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실천적 문제이자 공동체 윤리의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실천적 지침서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1. 윤리적 행위를 위한 양심

(1)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

베자는 흑사병이 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²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가족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한다.²¹ 베자는 흑사병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사람은 우선, 다양한 끈들로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있다. 성장하면서 가족을 넘어서 이웃의 관계로, 동료의 관계로 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로 얽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다.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얽혀있는 다양한 끈은 그 '관계'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강도에

²⁰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

²¹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

따라서 떠날지, 아니면 머무를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의 결과이다.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끈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끈이다. 가족공동체는 인간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에는 책임이 주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임무에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 끈이 가진 강도는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하거나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자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을 판단을 주요 척도로 삼는다.

인간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원의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 관계의 수가 다양하고, 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미 언급했듯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천부적인 혈연관계가 어느 관계보다 강하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붕괴를 낳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혈연공동체보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우선하여 선택해야 한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국가이며, 국가 공동체의 붕괴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베자에게 있어서 국가공동체는 최고 위정자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맺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다.²² 이는 국가구성원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으며, 구성원 각자가 짊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공적 임무를 맡은 위정자들은 국가 관료로서 흑사병이 발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며, 전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전염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연히 병든 환자들을 돌보는 책임이 부여된다. 국가의 위정자로서 관료들이 가져야 할 역할은 두 가지로, 전염의 원인을 찾아서 막아야 하고, 또한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병에 걸린 자와 건강한 자의 관계에서 건강한 자가 병에 걸린 자를 돌보아야

²² 베자는 이와 관련하여 파리에서 벌어진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에 대한 응답으로 저술한 “신학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린 자들도 건강한 자의 책무를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적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자들이 환자가 되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푸는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세운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베틀러는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연결된 책무 관계에서 윤리적 행위를 설명하였다. 공동체의 책무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행위의 관계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행위의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인 믿음에 대한 이해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베틀러는 우선, 믿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건에 대한 확고한 동의(a firm assent)로 설명한다.²³ 여기에서 베틀러는 동의를 단순한 지적인 앎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마치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그리스도를 앎(apprehension), 그와의 접붙임(ingrafting), 그리스도와의 연합(incorporation)과 교제(fellowship with Christ)로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문107.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악의 치료책으로 믿음을 이제 다루어봅시다. 이해, 접붙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본체를 자체가 서로 연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있다고 상상하는 자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환각적인 경험을 하고

²³ Beza,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s and Response In which the principal headings of the Christian Religion are briefly set forth* (Eugene, Oregon: Pickwick, 2009), 81문.

있으며, 이 땅의 용어로 말한다면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과로, 우리는 그렇게 그에게 참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지기까지 분명한 확증에 충분하게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것-즉,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선물로* 주셔서 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즐겁게 교제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²⁴

믿음은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107문에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실존론적 관계에서 믿음을 설명한다. 이 관계는 믿음을 “악의 치료책”로 정의하는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베자는 92-106문에 걸쳐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고 난 후, 다시 악의 치료책으로서의 믿음의 4단계를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존재론적 변화에서 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접붙이고 연합하여 교제하는 자로의 변화를 실존적 의지의 단계에서 다룬다. 이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심연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분이 드러내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일어난다.²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증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의 것”이 된 “자유로운 선물”임을 깨닫고 경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주요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24 Beza,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s and Response In which the principal headings of the Christian Religion are briefly set forth* (Eugene, Oregon: Pickwick, 2009), 40.

25 퍼킨스, 김지훈 옮김, “예정에 대하여 유혹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논의,” 『황금사슬』 (용인: 킹덤박스, 2017), 462.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뿐이다.

베자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친 후, 『질문과 응답』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예정의 결과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과 탁월한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정하셨음을 알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선택교리를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유일한 토대이자 근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효과들은 쓸모없어질 것이다.”²⁶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존재론적 변화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유추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사건이며, 이 경험을 통해서 예정에 대한 초자연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여기에서 “신비롭고 영적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 올라가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한 논증을 시도한다.

둘째, 베자가 표현한 “약의 치료책”으로서의 믿음의 특성은, 이미 그가 신앙고백서에서 복음을 약으로 비유한 것과 맞물려 있다. “약사가 병에 적절한 약을 처방하듯이,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만들어낸다.”²⁷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 전이를 이룬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가르치는 처방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위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을 매개로 순종의 대상이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도 이양된 것과 같다.²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²⁶ Beza, *The Christian Faith*, 4.19.

²⁷ Beza, trans. Philip C. Holtrop, *Sum of All Chritianity, or the Descrip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auses of Salvation of the Elect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probate, Collected from the Sacred Writings*, in *The Potter and Caly: The Main Predestination Writings of Theodore Beza* (Grand Rapids: Calvin College, 1982), 274-75.

²⁸ Beza, *Question and Response*, A 108: 40-1.

단계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선, 내 안에서 시작된 성화로부터 깨달게 됩니다. 즉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이 그 표지입니다. 여기에 나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증거, 나의 양심의 위로를 덧붙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성화와 영의 위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는 영원 전에 선택되었으며 결코 구원의 문에서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²⁹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화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예정에 대한 믿음의 표지이다.

그러므로 베자는 흑사병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도록 권면한다. 흑사병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발발한 전염병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좌절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베자는 분명하게 동시대인들과 함께 흑사병이 발발한 주요 원인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한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기 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별로 이 병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죄를 인식하도록 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³⁰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덧없음을 넘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종말에 있을 심판대에서 영생을 완성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

29 Beza, *Question and Response*, A 209: 96-7.

30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9.

의 변하지 않는 작정의 결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뜻에 따라서 주어진 영적 선물인 양자의 영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마지막에 있게 될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예정된 존재임이 인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양심이 믿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혼은 육체의 공격에 맞서서 후회해서는 안 되며³¹ 그리고 그 확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척도이다.

(3) 양심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

베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윤리적 판단과 행위의 관계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바로 흑사병이 발발한 곳을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어떤 척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베자는 실제적인 윤리적 판단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전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보냈는지를 숙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이 땅만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 삶을 넘어서 죽음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 아래서 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척도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판단을 위한 척도로 삼아 당시에 제기된 의문에 답변을 시도한다. 당시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여, 흑사병이 돌 때 마을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아픈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을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이며, 이 땅에서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베자는 우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멀어지기를 원한 반면,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골육 친척을 위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증거 구절로 제시한다.³² 성경의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분명 상반된다. 그러면,

31 Beza, *Questiones and Responses*, A 212: 98.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의 고백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베자는 바울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의 행위에 자체가 아닌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좋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복종했는지에 두었다.³³ 베자에게 있어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양심의 확신이다. 베자는 윤리적 척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가르친 이웃의 사랑은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방법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어떤 마음에서 행동을 하는지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의지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베자에게 있어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주요한 판단 척도로 삼았다. 이는 칼빈을 계승한 원칙이다.³⁴ 베자는 여기에서 흑사병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시켜 나간다. 베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사유하고 판단해야만 하는지를 질문한다.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마을을 떠나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항하여, 베자는 세 가지를 반대 논리로 제시한다.

32 바울을 이 긴장을 또한 증명한다. “그는 그의 목숨을 기다리는 자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기를 기이사에게 원한다(행 25:11). 그리고 (3) 마지막 예는 사울, 암살범, 그리고 죽을 그자체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에서 본다. 이에 베자는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누구든지 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말아야 한다. 반대로 죽음을 원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33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3.

34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모름지기, 그 동일한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바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힘써 나가감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 뜻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리 저리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하는 것이다. 칼빈, 『기독교 강요』, 1.17.5.

첫째, 성경은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둘째, 성경적인 특별한 명령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성경은 흑사병에 대한 모든 예를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지 않는다.³⁵ 베자는 흑사병과 관련하여 성경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흑사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다. 베자가 말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그리스도인의 일반은총으로서의 이성에 근거한 규칙이다. 베자가 『질문과 응답』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루면서 이를 다루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베자는 인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성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원에서 이성을 토대를 둔 확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베자 이후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³⁶

하지만 다양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인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베자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율법인 예수의 이웃사랑을 상기시킨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라고 권면한다. 특히,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려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의 계명인 이웃 사랑의 원칙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³⁷ 베자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경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윤리를 따라서 판단하도록 권고한다. 흑사병이라는

³⁵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5.

³⁶ Aza Goudriaan, “Augustinus und die Vernunft der reformierten Orthodoxie,” Herman J. Selderhuis/ Ernst-Joachim Waschke (Hg.), *Reformation und Rationalitä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221; “Theology and Philosophy,” Herman J. Selderhuis, *A Companion to Reformed Orthodoxy* (Leiden. Boston: Brill, 2013), 31.

³⁷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7.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명령, 즉 이웃 사랑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선시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절대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은 다양하나 예수가 명한 이웃사랑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대전제로서 어디서나 동일하다. 이 대전제에서 이성으로서의 논리적 사유와 양심에 따른 의지의 판단이 주요 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성의 논리적 사유와 양심에 따른 의지의 결과로서의 행위는 확신에 근거하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 당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을 향해서 베자는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변증하였다. 그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며 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그 예를 제시하여 변증하였다: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야곱,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다윗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³⁸ 베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비유를 들어 이들을 비난할 만큼 선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³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만들어졌으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논증하였다.

정리하면, 베자는 우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른 윤리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성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마을을 떠나는 것은 명백한 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임무와 소명의 자리를 내팽개친 행위이기 때문이다. 베자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윤리적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척도이다. 이 전제에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에 분별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³⁸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3-14.

³⁹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3-14.

둘째, 베자는 다양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올바른 행위를 위한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 개인의 사적 유익을 배제하고, 실제적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애 근거한 논리적 추론과 양심의 판단에 따른 일반적 원칙을 찾아야 한다.

셋째,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공동체의 임무가 겹쳐 있을 때는 당연히 공동체가 부여한 임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의 나라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진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 ... 사랑은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⁰ 인간의 이기적 감정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임무를 우선시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를 떠날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윤리적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인해 어렵다.⁴¹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이 퍼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외적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 변이는 성화의 삶에서 윤리적 행위가 변화의 표지로서 나타나야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도와 그 결과로서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윤리적 판단은 그리스도인의 의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도와 그 결과로서 행위가 일치하기 보다는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체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⁴²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객관적 판단의 척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최상이라는 여겨지는 일”을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기도는 인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로서 순종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움직이던 교만과 자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을 붙잡고 확신과 용기를 갖고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선한 행위가 흘러나오게 된

40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7-18.

41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1-12.

42 베자는 신앙고백서에서 “기도와 이웃 사랑”을 언급한다. Beza, *The Christian Faith*, 4.15.

다.⁴³

2.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흑사병

베자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은 동일하게 흑사병의 발발 원인을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다.⁴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주요 논제로 부각시켰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실재에서 벗어나 도망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든, 두려움으로 도망을 하여 살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일들은 실재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반영이며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에 마주할 영원의 실재다. 그리스도인이 뒤돌아 다시 상대할 할 분은 흑사병 뒤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베자도 흑사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동시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영원한 작정을 바라보아야 한다.⁴⁵

하나님의 벌로서의 흑사병에 대한 이해에서 당시 논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과 주권에 대한 전적인 수용 여부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이다. 우선, 흑사병의 발발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그의 전능에 대한 불신의

⁴³ Beza, *The Christian Faith*, 4.15.

⁴⁴ Beza, *Treatise of the Plague*, 2.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가 근대이후의 제기된 문제와 거리를 둔다. 오늘의 변증학에서 다루는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성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닿아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6.3 참조. 바로 이 지점에서 칼빈은 허용의 개념을 사용한다.

⁴⁵ 베자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서술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욕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한다. 『기독교 강요』 1.18.1.

표현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 인간의 노력을 거부한다. 이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에, 심지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눈 감아 버린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정해 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섭리의 시행자이시다. 이에 베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고 그의 영원한 섭리가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상의 적법한 수단을 제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명백한 예(행 27:24, 31)에서 보는 것처럼 삶의 연장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끝내는 것과 관련하여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기 드물다.⁴⁶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는 그가 예정론을 다루면서 내세운 주요 논지이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운 목적을 이 땅에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불순종한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느냐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여 경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이 일을 게을리 행하여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자의 반론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이라는 주장에 대항하여 병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한다. 베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흑사병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다. 흑사병

⁴⁶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2.

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낸 목적이지, 병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벌을 주어 자신의 죄를 깨달아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위선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17.1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⁴⁷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베자는 『질문과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신 목적을 “그[하나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증함으로써 영광을 받기 위해서”(2문)라고 가르친다.⁴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올바르게 드러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낸 목적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앞에서 전술한 것처럼, 구원의 자리로의 인도이며,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감이기며, 인간의 행위의 윤리적 판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올바르게 악에 대항하여 그 자리에 있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내린 흑사병 그 자체는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흑사병을 보내신 목적은 인간을 병으로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바라보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항하여 그 치료책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흑사병은 “자연발생적이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베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서 명확하다: 인간은

47 “우리가 비참한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하며, 그런 처지를 장별로 여겨서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는 것보다 더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기독교 강요』 1.17.1

48 Beza, *Questions and Responses*, A.2: 5.

죽음 이후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자연발생적 원인을 통해서도 이루신다.⁴⁹

베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개념을 구분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대명제로 삼고, 이 작정을 이루는 방법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 개념화시킨다. 그것이 이차원인(secondary cause)이다.⁵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원인을 사용하신다. 이차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⁵¹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를 일깨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치료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당시 적대자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아무런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모순에 빠진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이니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지 말자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분명 죽음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아담으로부터 나타나기에 인간 모두는 죽는다. 그렇다고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야 하는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니 그렇기 해서는 안 되는가?⁵² 분명 그렇지 않다. 베자는 이를 분명하게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차원인을 통해 병에서 벗어날 치료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논증한다.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흑사병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베자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빛을 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망하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미래의 판단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예상해야만 한다.

49 Beza, *Treatize of the Plague*, 3.

50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제2원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나도록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수단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제2원인에 있어서 악한 어떤 것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 Christian Faith*, 3.5.

51 Beza, *Treatize of the Plague*, 4.

52 Beza, *Treatize of the Plague*, 4.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분노로서의 흑사병 소식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를 소환해야만 한다. 그 자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막대기는 장소를 변경시킬 수 없으나 방식은 가능하다. 인간 모두는 심판대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내보여야 하며,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심판의 자리에 설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베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변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착한 행실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리이자 임무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원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병에 걸린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만약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경고한다.⁵³

베자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원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다. 여기에 어떤 방식 하나를 고착화시켜 사유를 전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날 자를 택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를 약속하셨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베자는 이 양립가능성을 성경의 예, 즉 파라오를 섬기는 요셉의 행동, 파선하는 배에서의 바울의 행위 등을 들어 논증한다.⁵⁴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 법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자를 반대하는 자들이 놓치는 가장 큰 오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장

⁵³ Beza, *Treatize of the Plague*, 4.

⁵⁴ (1)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동안 요셉의 행동, (2) 아가보스의 예언 (3) 앗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 (4) 파선하는 배에서의 바울의 대응 (5) 예수님의 겐세마네에서의 기도, Beza, *Treatize of the Plague*, 9-10.

큰 열매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하고 사랑하게 하는 목적을 있게 만드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각자가 처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며 영생을 상고하도록 하신다. 이 목적을 수행하고자 이차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이차수단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16.9에서 예수의 뼈를 비유로 들어 구분한 두 개념인 ‘결과의 필연’(necitas consequentis)과 ‘결과적 필연’(necitas consequentiae)을 그대로 수용하여 설명한다.⁵⁵ 인성을 지닌 예수의 뼈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러져야 한다. 하지만 예수의 뼈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따르면 부러져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인성을 지닌 바로 그때로부터 죽을 몸을 견뎌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다른 아들과 같이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학살당하지 않았다. 그 몸의 본성을 고려한다면, ...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하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 그는 틀림없이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었다. 그의 자연적 죽음을 고려한다면, 그는 우연히 죽음을 맞이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었다. ...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작정에 불쾌한 우연이자 의지이다.⁵⁶

베자는 흑사병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는 살아남고, 어느 누구는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55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59), I. 16. 9; CO 2, 153: Unde iterum videmus, non temere in scholis inventas fuisse distinctiones de necessitate secundum quid, et absoluta; item consequentis et consequentiae.

56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0-11.

맞이하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며, 오히려 흑사병은 전염에 의해서 확산되는 병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시편 91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연적 원인과 그 결과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음에도 살아나거나,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과 접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울이 짐승에게 물렸어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뱀의 독이 치명적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행 28:5)⁵⁷ 성경과 경험, 모두 역병의 전염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자연적으로 전염되는 병임을 암시한다.

흑사병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발병하지 않는다.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고통을 더하고 복수심을 자극하는 사악함에 매몰되어, 그것에만 반응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수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운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 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한 일을 올바르게 이루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증생한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욕망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병 자체는 선과 악의 판단에서 중립성을 띠게 되며,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에 저항하며 사느냐에 달렸다.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주는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시험을 견뎌야한다.

IV. 나오는 말

베자에게 흑사병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붕괴를 낳는 고난이자

⁵⁷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1.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였다. 그는 흑사병일 것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죽음의 목전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 죽음의 목전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였다. 흑사병은 그에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이끈 하나님의 섭리였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의 자유라는 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해 제네바 아카데미가 붕괴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윤리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좌절과 고민에 대한 답과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결단을 내리는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자는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란 책을 출판하여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하였다. 흑사병이라는, 이성을 넘어서 발발한 전염병 앞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권면하고자 하였다.

베자는 첫 번째로, 믿음은 영원 전 하나님이 작정한 초자연적 초대이며 악과 싸우는 성화의 출발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는 영원으로 확장된 삶의 자리이자 양심의 결단을 연 첫 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표지를 죄를 미워하는 항거와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악에 대항하는 자리에 서있어야 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목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흑사병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베자는 실천적 목회자이다. 흑사병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제기된 양심의 윤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하나하나 답한다. 그는 흔들리는 양심에 변하지 않는 객관적 척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구한다. 성경을 척도로 삼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명확하게 이웃사랑이다. 베자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복잡하게 때문에 실천적 적용을 위한 해석의 틀로서 일반적이며 보편적 원칙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권한다. 올바

른 성경해석을 위한 주요한 척도로 “양심의 평안”과 “악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성경에서 얻는 원칙과 기준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베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는 방식에 주목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차원인을 통해서 그가 세운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때로는 사랑의 징표로, 때로는 분노의 증표로 나타내신다. 그 나타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시고, 진노의 징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도록 하신다.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고유한 그리고 본성적 차원에서”(porprie et naturaliter)⁵⁸ 은밀하게 그 목적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겸손하게 우주의 창조자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구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베자는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어들이어 하나님의 섭리를 서술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칼빈의 전기』이다. 베자는 하나님께서 칼빈의 사역에서 어떻게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의 생애를 서술한다. 이는 그의 프랑스 개혁교회의 역사 서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인내의 동력이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보게 한다.

58 John Calvin, *Praelectiones in Lamentatione Ieremiae*, CO 39, 588: Hoc autem verum non esset, nisi penderent omnia a Dei consilio. Videmus ergo nihil contingere, quia quidquid geritur, manat ab aeterno et immutabili consilio Dei. Verum quidem est, quae possunt hoc modo vel alio habere, proprie et naturaliter vocari contingentia: sed quod naturaliter contingit, illud est necessarium quatenus gubernatur a Deo: imo quod geritur hominum consilio et voluntate, illud est necessarium.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베자는 흑사병에 대한 중세적 대응을 넘어서 흑사병 자체를 윤리적 판단에서 벗어난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둘째로 베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무력한 인간이 아니라 이차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원칙에서 추론되는 이성 토대를 둔 일반적 원칙과 양심의 확신을 판단의 척도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잣대로 삼았다. 이로써 근대사회의 특징인 자율적 인간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Berg, M. A. van den. tran. Reinder Bruinsma. *Friends of Calvin*. Grand Rapids: W. D. Eedmans, 2009.
- Beza, Theodore. tran. Kirk M. Summers.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as and Responses*. Eugene, Oregon: Pickwick, 2009.
- _____. trans. James Clark. *The Christian Faith*.
- _____. trans. Philp C. Holtrop. *Sum of All Christianity, or the Descrip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auses of Salvation of the Elect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probate, Collected from the Sacred Writings. in The Potter and Clay: The Main Predestination Writings of Theodore Beza*. Grand Rapids: Calvin College, 1982.
- _____. Correspondence de *Théodore de Bèze*. ed. Hippolyte Aubert, Henri Meylan, Alain Dufour. Geneva. 1960-.
- _____. trans. John Stockwood. *A Shorte Learned and Pithie Treatize of the Plague*. London: Thomas Dawson, 1580.
- Goudriaan, Aza. “Augustinus und die Vernunft der reformierten Orthodoxie.” Herman J. Selderhuis/ Ernst-Joachim Waschke (Hg.). *Reformation und Rationalitä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209-224.
- _____. “Theology and Philosophy.” Herman J. Selderhuis. *A Companion to Reformed Orthodoxy*. Leiden. Boston: Brill, 2013: 27-63.
- Haas, Alois M. *Todesbilder im Mittelalter Fakten und Hinweise in der deutscher Literatur*. Darmstadt, 1989.
- Hegel, C. *Chronik des Burkard Zink 1368-1468*. Leipzig, 1866.
- Manetsch, Scott. M. 신호섭 옮김. 『칼빈의 제네바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_____. “Beza and the Crisis of Reformed Protestantism.” ed. Martin I. Klauber.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24-56.

Perkins, William. 김지훈 옮김. 『황금사실: 신학의 개요』. 용인: 킹덤북스, 2016.

Wright, Shawn D.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Glasgow: Christian Focus, 2015.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2007), 159-82.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 연구.” 『장신논단』 46(2014), 115-35.

[Abstract]

Flowers Blooming in Suffering: True Christian Life
Focusing on Beza's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1579)

Shin Hye Yang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The Plague, which destroyed the Middle Ages, was a stumbling for the Reformers to obstruct ministry as well as an obstacle to break a community. Some ministers leave the church with fear of death or some pastors also claim that plague is God's wrath and fleeing from the plague is not to believe God's providence. Against it, Beza wrote the article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1579). Therefore, I investigated how Beza explained against the misunderstanding of the plague and how he responded to questions suggested from the plague. I found out what are the criteria of ethical judgement for the christian in the situation of collapsing of the community, and how to judg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Finally, I examined God's mercy and providence in the suffering as the greatest challenge to Christians.

In this I have shown how Beza goes beyond medieval reponses and uses rational principles and conscience as the basis of Christian ethics for ethical judgement.

Key Words: Beza, Plague, Vocation, Providence, Conscience, Ethical Criterion

